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43~55, 2002. 12.

제 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내용의 비교분석

-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을 중심으로 -

심 정 규*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eography Contents of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 Primarily Concerning the unit of "III. the Formation of Living Space and its Change" -

Jeong-Gyu Sim*

요약 :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서는 체제와 내용이 학습자의 주체적 사고를 자극함은 물론, 창의적 사고력 및 탐구력을 기를 수 있으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Romey의 교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교과서의 탐구지향성을 평가하였고, 교육과정의 내용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핵심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탐구활동과 사례의 구성이 적절한지, 개념 정의나 이론 설명에 보편성과 정확성이 있는지, 문장의 표현과 표기에 있어서 어색한 표현이나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6종 교과서에 대한 체제와 내용분석의 결과,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탐구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탐구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내용의 전개면에서 단원 및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개체제가 적용되었고, 본문내용 및 탐구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몇몇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점, 탐구활동과 주제의 연결성이 미흡한 점, 문맥이 매끄럽게 기술되지 못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주요어 : 활동중심형 단원체제, 연역계열의 설명형 교과서, 탐구지향성

Abstract :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ims at creating education of student level and self-directed learning environment. Therefore, textbooks should be composed of easy and interesting materials which provide learners with independent thinking, support their learning activit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creativity and inquiry.

Using Romey's textbook analysis method, this article evaluates if textbooks are inquiry-oriented, contents of curriculum are substantial, research activities and examples for basic concepts are appropriate, explanation for concept and theory is valid, and sentences are grammatical or consist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ix kinds of textbooks in the 7th curriculum, they can encourage students' creativity and inquiry by providing meaningful situation for learners and diverse collaborative

* 중산고등학교 교사(Teacher, Joongsan Highschool)

environments with peers. Also, students can be exposed to various kinds of materials and research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s of each chapter.

But some problems are found that a few textbooks don't fully reflect the contents of curriculum and research activities are somewhat irrelevant to their subjects along with some ambiguous contexts.

Key words : activity-centered unit system, deductive and explanatory type text,inquiry-oriented

I. 서 론

21세기의 정보화 및 지구촌사회로의 변화는 사회과 교육과 지리교육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정보와 지식의 수집 및 활용능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내어 핵심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데 교육적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교육전문가들의 관심이 반영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지리) 교과서는 교과 교육목표에 적합하게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지리, 역사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종합적 이해를 가능케 하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6차 교육과정까지의 사회(지리)교과서는 학생의 탐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순한 지식전달 위주의 진술로 편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현행 중등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참신성과 시대감각의 부족, 구조화 및 체계화의 미흡, 일상생활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흥미 감퇴, 분량의 과다 등이 지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과 체계가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6종의 사회(지리) 교과서를 체제와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는데, 체제 분석은 단원의 전개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내용분석에서는 내용의 적절성과 오류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더불어, Romey의 기법에 의한 교과서의 탐구지향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자료는 〈표 1〉에 나와 있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6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후로는 각 출판사별 교과서를 기호로 표시하였다.

표 1.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6종

기 호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A	두산동아	손봉호 외 9인	2001년
B	중앙교육	김주환 외 8인	2001년
C	(주)도서출판 디딤돌	오경섭 외 6인	2001년
D	지학사	황만익 외 12인	2001년
E	대한교과서	최병모 외 7인	2001년
F	법문사	김재한 외 9인	2001년

II.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교육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는 학습 정보 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자, 개별 또는 집단학습의 안내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알고 검색·추적할 수 있는 능력, 각종 정보 통신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과전문가들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핵심적 지식을 선정해야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핵심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곧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데 교육적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의 방식도 변화하여 교과서와 칠판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 기자재를 갖추고, 이른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어

떻게 종합, 응용해서 재창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집단보다 개인 교육이 존중되는 교육체제가 요구되며,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한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열린 교육, 체험학습, 수행평가 등 새로운 수업방식과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학습의 개별화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이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능력을 발휘하여 탐구하고 발견해가는 학습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얼마동안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시하는 학력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적·정의적 잠재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로서 창의력과 사고력 및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이어야 한다. 또한 수준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며,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교과서를 지향한다. 이전 교육과정의 사회교과서와 비교하여 7차 교육과정 사회교과서의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력과 사고력 및 탐구력을 기르기 위한 문제해결 및 탐구활동이 강조되었다. 학생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의미 있고, 흥미로우며, 풍부한 개념과 일반화가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제시해 줌으로써,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신, 본문의 내용은 대폭 줄여 수업진행에 따른 시간 부담을 감소시켰다.

둘째, 내용 조직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두었다. 그러나 별도의 보충과정은 편성하지 않았다.

셋째, 내용의 전개면에서 단원 및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개체제가 적용되었다. 특히, 탐구활동으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가 증가하였다.

넷째, 외형체제 면에서 4×6배판의 판형을 적용하였으며, 4도 인쇄, 지질의 개선,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 등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보기에 좋게 제작되었다.

다섯째, 사진, 그림, 도표, 지도 등을 본문 내용 및 탐구활동과 연계시켜 학습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III. 사회교과서의 체제 및 분량 분석

1. 체제분석

교과서의 체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가의 측면과 판형이나 지질, 색도, 쪽수와 같은 외형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체제는 '단원 안내 - 본문 - 학습 정리'의 체제를 유지하여 6차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6차 교과서에 비해 학습자의 탐구활동이 크게 강조되어, 탐구활동을 통해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즉, 전통적인 교과서는 가르칠 내용을 먼저 주어 연역적으로 이해시켜 나가도록 도왔으나 7차 교과서에서는 자료를 먼저 주고 자료를 통한 탐구활동을 통해 귀납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된 교과서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보충 및 심화학습의 자료가 제시되었다. 외형적인 체제에서도 변화가 많아 4×6배판으로 판형이 확대되었고, 지질도 고급서적지로 향상되었으며, 4도 이내의 색도로 구성되었다.

단원의 체제는 학습의 흐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전개방식을 달리하였을 때 얻어지는 학습효과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원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식[1]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차 교육과정까지의 대부분의 교과서는 대체로 사실적 지식이나 개념, 일반화 위주의 지식·정보 중심형의 체제를 갖고 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조성 신장을 강조하여 E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활동과 지식·정보 제공을 절충한 형태이다. 그러나 E는 활동 중심형 단원체제에 가까워 지식 및 정보의 제공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출판사와 구별된다.

6종 교과서의 단원의 전개 체제는 〈표 2〉와 같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대단원제목 및 안내 3개의 중단

원(제목 및 학습목표, 생각열기 내용정리 및 탐구활동 심화학습) 대단원마무리'의 체제를 갖고 있으며, 6차 교육과정까지의 교과서에 비해 탐구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게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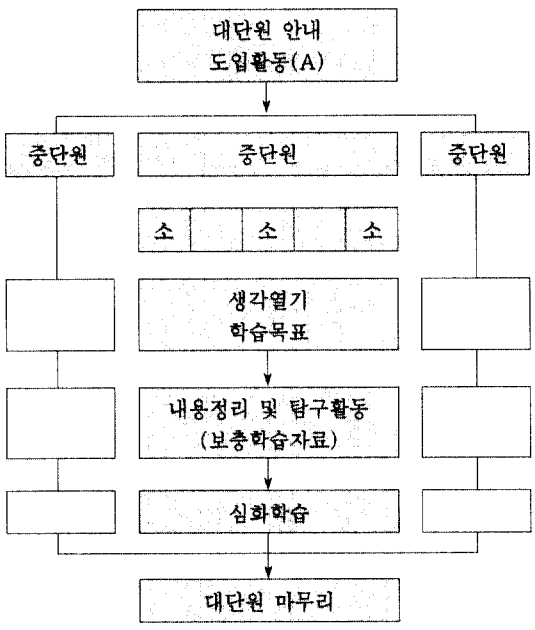
1) 단원 구성요소별 분석

(1) 제목

제목은 해당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영역, 주제에 대한 기술로서 의미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 A, C는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A교과서 p. 78.)와 같이 질문 형태의 제목으로 대부분 구성하였으며, B, D, E, F는 "농업과 공업의 입지요인"(D교과서 p. 82.)과 같이 일반적인 주제형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형태의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제목을 질문형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일반적인 주제형 제목 구성도 "교통의 발달에 따라 확대되는 도시공간"(E교과서 p. 90.)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확대 원인이 교통의 발달임을 알 수 있으므로 핵심주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대단원의 전개체제



(2) 단원의 목표

단원의 목표는 상위목표인 사회과의 목표에 근거하여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습할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제시하여 학습활동의 초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 영역을 고르게 섞어 제시해야 한다. 7차 교과서에서는 '분석한다', '응용하다', '분류한다', '구성한다', '제시한다', '일반화시킨다', '추론한다', '해석한다', '비교한다', '관찰한다' '토의해 본다' '관계짓다' 등과 같이 사회과학으로서의 구체적 '행동적 목표'(behavioral objectives)를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크게 늘어났다.

6종 교과서의 단원목표 진술의 위치에도 차이를 보여, A와 B, D는 중단원에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C, E, F는 소단원에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 단원의 도입

단원의 도입방식은 학습자의 주의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번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D와 같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가 6차 교과서의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A, B, E, F와 같이 최근의 사회변동의 사례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호기심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단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본문 내용

본문내용은 사실적 상황이나 이론 체계를 중심으로 선정되는데, 탐구활동과 내용정리 등의 순서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김순택은 본문내용의 제시 방식을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원리를 나중에 제시하되 교과서에 충분한 설명과 답이 곁들여지는 형태인 귀납계열의 설명형, 사례를 귀납적으로 계열화하되 학생에게 답을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전개방식으로, 사례만 제시하고 원리를 제시하지 않지만 질문이나 암시를 통해 처리하는 귀납계열의 발견형, 원리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나가는 연역계열의 설명형,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는 형태로 이론적으로는 있

을법한 형태이나 실제로는 보기 힘든 유형인 연역계열의 발견형 등 4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김순택의 유형 분류에 따라 6종의 교과서를 분류하면, A는 지리영역인 I~IV 단원에서는 귀납계열의 설명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나머지 단원은 연역계열의 설명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B, C, D, F는 연역계열형의 설명형 교과서로 분류할 수 있으며, E는 유일하게 귀납계열의 발견형에 가까운 교과서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심화학습 자료는 중단원의 끝부분에 제시되었는데, 대부분이 내용정리 없이 사례 위주의 학습자료를 주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E는 기본학습 내용의 체제와 똑같이 구성되었다.

(5) 단원마무리

대단원의 마무리는 출판사 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A는 단원내용을 간략히 구조화하여 표현한 후 마무리 테스트를 제시하였으며, B는 단원내용 확인하기와 단원정리 문제로 구성되었다. C는 단원의 내용을 간략히 구조화하여 제시하였고, D는 학습정리, 교실밖 탐구와 선택활동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는 단원의 내용을 구조화한 정리 내용과 간단한 확인문제, 단원마무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F는 단원의 학습 요소를 제시한 후, 내용정리와 수행평가 및 여론광장 등이 차례로 나열되어 가장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2) 학습자료 분석

교과서에는 교과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사회교과서의 지리부분은 지도와 표, 그림, 통계자료, 사진, 신문기사 등 다양한 학습자료가 제시된다. 6차 공통사회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의 학습자료가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실린 경우가 많았고, 그 양도 한정되어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학습자료가 학생 탐구활동에 많이 활용되어 본문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그 양적인 면에서도 풍부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학습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좋은 교과서는 아니며, 지식체계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적절하게 제시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을 중심으로 각 출판사의 교과서에 사용된 학습자료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해보았다.

(1) 사진자료의 분석

6차의 교과서는 중질지에 흑백사진을 실어서 사진의 선명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7차 교과서부터는 지질이 향상되었고 칼라사진이어서 가시성이 훨씬 높아졌다. 또한 6차 교과서에서는 사진이 단순한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본문과의 직접적 연계가 적었으나, 7차 교과서에서는 사진이 탐구활동에 사용되는 등 학습활동을 전개하는데 직접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사진의 선명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출판사의 제작 여건이 열악하여, 국외사진의 경우는 외국도서에서 그대로 카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진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사진자료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을 통한 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A 교과서의 78쪽의 '마을은 어느 곳에 자리잡는가?' 라는 탐구활동은 제시된 사진이 너무 작아 사진속의 취락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탐구활동이나 본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B 교과서의 96쪽의 탐구활동 사진, 111쪽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사진이나, F 교과서의 단원도입부 사진, C 교과서 81쪽의 서소문사진 등은 본문의 내용과 적절히 연결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

셋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사진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경우가 있다. B 교과서 110쪽의 일산의 토지이용의 변화 사진, C교과서 85쪽의 구로산업단지 사진, D 교과서 95쪽의 도시재개발 사업 사진 등은 변화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2) 지도 및 도표, 그림 분석

지도와 도표는 지리교과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7차 교과서에서는 앞에서 다룬 사진과 마찬가지로 지도와 도표가 본문내용의 일부인 탐구활동에 직접 사용되어, 단순히 보조자료 정도로 사용되었던 6차 교과서와 구별된다.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지도, 도표, 그림 등은 색감이 좋아 교과서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주었으며, 적외선 원격탐사 사진처럼 흑백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거뜬히 처리해 내었고, 요즘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만화구성이 많이 눈에 띄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라로 그린 도표와 그림 및 지도는 색상의 선택과 제작에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C의 83쪽의 논·밭 비율에 의한 농업 지역구분 지도는 농업지역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농업지역의 경계를 선으로 구분해주는 것이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C의 85쪽의 가상 지역의 공업입지 그림과 같이 바탕색이 진해서 그 위에 실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잘 안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교과서의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의 93쪽 도시 분포 지도에서 하단의 샘플이 지도에서의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같은 내용의 자료를 중복하여 싣지 않아야 한다. E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의 변화를 그래프와 수치가 제시된 표로 함께 싣고 있다.

넷째, 삽화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 1과 같이 삽화가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C의 부심과 주변지역의 활동에 나오는 삽화의 내용만 가지고 아래의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도상의 전 지역에 건물의 층수를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지역의 건물 몇 개를 그려 놓고는 고층건물의 밀도가 높은 장소를 표시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되며, 표시한 지역과 주변지역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나, 모둠별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라는 질문은 서울에서도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면, 답을 할 수 없다.

다섯째, 자료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의 78쪽에서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이웃 지역을 그린 지도와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이웃지역을 그린 지도는 실제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그린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활동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초등학생의 지도가 훨씬 세련되게 그려졌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2. 분량분석

1) 대단원별 분량 분석

10학년 사회교과서는 표 3과 같은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I. 국토와 지리정보~IV.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까지는 지리내용이며, 'V.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은 지리중심의 내용에 역사와의 부분적 통합단원, 'VI.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은 역사와 일반사회의 통합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VII. 정치생활과 국가~X. 사회변동과 미래사회'는 일반사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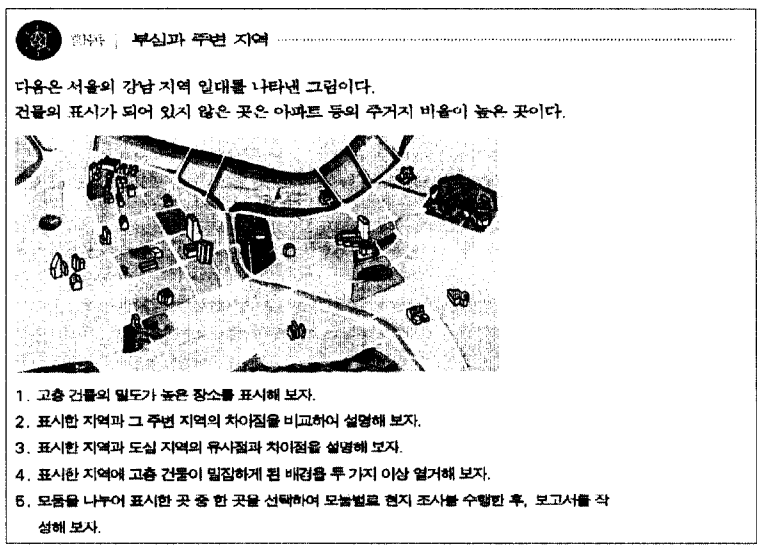


그림 1. 부심과 주변지역 탐구활동

표 3. 사회과 교육내용의 체계별 분량

영역 / 학년		인간과 공간	인간과 공간+시간 인간과 사회+시간	인간과 사회
10학년		• 국토와 지리 정보 • 자연 환경과 인간생활 •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 환경문제와 지역 문제	•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 시민	• 정치 생활과 국가 •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쪽수 (%)	A	120(41.4%)	58(20%)	112(38.6%)
	B	134(40.9%)	62(18.9%)	132(40.2%)
	C	130(43.8%)	52(17.5%)	115(38.7%)
	D	128(41.3%)	60(19.4%)	122(39.4%)
	E	112(35.7%)	62(19.7%)	140(44.6%)
	F	134(40.6%)	64(19.4%)	132(40.0%)

교과서가 지리부분(I~IV)과 일반사회(VII~X) 부분이 40% : 40%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E는 일반사회 부분이, C는 지리부분이 분량면에서 약간 많게 편성되어 있다.

6종 교과서의 대단원별 분량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리 영역에서는 'II. 자연환경과 생활'과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VIII.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단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출판사별로 볼 때, B와 F가 전체 351쪽으로 분량이 많은 편이며, A와 C가 각각 303, 311쪽으로 비교적 분량이 적다.

3. 내용분석

1) W.D. Romey 기법에 의한 교과서 내용 분석

(1) 본문의 분석방법

W.D. Romey의 교과서 내용분석 기법은 과학교과서와 실험안내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W.D. Romey는 교과서의 내용분석 방법으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나, 과학교과서와 지리교과서의 차이점과 또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본문 내용만을 대상으로 6개 교과서의 학생의 참여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7차 교과서는 본문 안에 탐구활동이 들어 있으므로 탐구활동의 과제 하나를의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하였으며, 대단

표 4. 6종 교과서의 대단원별 분량

	A	B	C	D	E	F	평균
전 체	303	351	311	327	327	351	328.33
I. 국토와 지리정보	30	28	28	24	20	32	27
II.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36	36	40	42	40	34	38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30	44	36	34	30	34	34.6
IV.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24	26	26	28	22	34	26.6
V.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26	28	28	28	30	32	28.6
VI.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32	34	24	32	32	32	31
VII. 정치생활과 국가	26	36	28	28	30	34	30.3
VIII.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32	38	36	38	36	40	36.6
IX.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28	34	26	30	40	30	31.3
X.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26	24	25	26	34	28	27.1
기 타	13	23	14	17	13	21	16.8

원의 안내, 학습목표 또는 학습의 주안점, 심화과정과 기타 학습자료를 제외하였다.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문장을 읽은 후, 각 문장의 내용을 아래의 ⓐ~ⓗ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 사실의 진술

사실의 진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나 관찰한 것을 묘사하는 간단한 진술을 말한다.

ⓑ 결론 또는 일반화

결론은 일련의 사실에 대한 유형들 사이의 관계나 뜻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며, 일반화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보편성 있게 서술하여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증명한 서술이다.

ⓒ 정의(定義)

정의(定義)는 어떤 개념을 확정하여 명백하게 밝힌 진술이다.

ⓓ질문 후에 바로 교과서에 답이 나오는 경우

ⓔ 학생들에게 자료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예로서, "1979년과 1991년의 서울 근교의 토지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서로 비교해보자."(E교과서 p.89.)가 해당한다.

ⓕ 학생들에게 자기 나름의 결론을 만들게 하는 진술

ⓖ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지시

ⓗ 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키지만 교과서 안에서 직접적인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

위에 열거한 내용 중 ⓐ, ⓑ, ⓒ, ⓓ는 학생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많은 교과서일수록 학생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 ⓕ, ⓖ, ⓗ항의 내용이 많을수록 탐구 지향적 교과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학생의 참여지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학생참여지수} : T = \frac{(ⓔ+ⓕ+ⓖ+ⓗ)}{(ⓐ+ⓑ+ⓒ+ⓓ)}$$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학생참여지수가 0이라 함은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그 지수가 1이면, 학생의 참여가 필요없는 내용과 학생의 참여활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반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탐구학습 내용에 대한 탐구학습 내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W.D. Romey는 T값에 따라서 다음의 표 5와 같이 교과서를 분류하였다.

(2) 분석결과

6종의 교과서를 W.D. Romey의 정량적 내용 분석기법에 의해 본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차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로미 기법에 의해 분석한 '중학교 『사회1』교과서의 비교분석'(장현정, 1996)에서 보면, 6차 교과서는 T값이 모두 "0"이어서 학생들의 참여가 전혀 필요없는 교과서였으나 7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는 단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T값의 평균 0.20~1.05에 이르러 6차 교과서에 비해 탐구지향적 교과서에 많이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출판사별로 보면, E교과서는 단원에 따라 0.75~1.53에 이르러 가장 탐구지향적 교과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W.D. Romey가 언급하였듯이 지나치게 탐구지향적인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실적 지식을 분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일반화' 또는 '결론'적 기술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는 교과서는 교수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 교과서는 단원에서 알아야 할 핵심이 정리된 본문 내용이 거의 제시되지 않아, 기존의 교과서 틀을 깬 파격적 교재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T 값의 해석

	참여지수=T			
	T = 0	0 < T ≤ 0.5	0.5 < T ≤ 1.5	T > 1.5
T값의 해석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전혀 필요 없다.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으로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탐구적 교과서로 가장 바람직하다.	탐구적 성향이 지나쳐 학습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유형	권위주의적 교과서		탐구지향적 교과서	

표 6. Romey 기법에 의한 6종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	ⓑ	ⓒ	ⓓ	ⓔ	ⓕ	ⓖ	ⓗ	계	T
A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1.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9	25	1	1	8	3	4		51	0.47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30	23	8	2	3	1	15		82	0.30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20	17			5		9		51	0.37
		계	59	65	9	3	16	4	28		184	0.36
B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1.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16	31	5	3	5		10		70	0.27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40	28	9		5		9		91	0.18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41	23	3		3		11		81	0.20
		계	97	82	17	3	13		30		242	0.21
C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1.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22	35	6	2	5		24	2	96	0.48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37	18	7	1	1		18	2	84	0.33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29	20	1				12		62	0.24
		계	88	73	14	3	6		54	4	242	0.36
D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1.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26	11	2		10		8		57	0.46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26	17			7		13		63	0.47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16	5	2		8		7		38	0.65
		계	68	33	4		25		28		158	0.50
E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1.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18	9	2	3	5		18	1	56	0.75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10	5			5	1	15	2	38	1.53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8	5		2	10		7	1	33	1.20
		계	36	19	2	5	21		40	4	127	1.05
F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1.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31	24			1		8		64	0.16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34	27	4	1			13		79	0.19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31	13	2		1		10		57	0.24
		계	96	64	6	1	2		31		200	0.20

셋째, B와 F교과서는 T값이 0.20 내외로 비교적 낮은 수치가 나왔으나, 이 것은 다른 출판사에 비해 본문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탐구활동의 질문이나 활동과제 항목은 적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놓고 B, F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 덜 탐구적이라는 해석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

2) Bloom의 인지적 행동 목표에 의한 질문 및 과제 분석

블룸(Bloom)과 그의 동료들은 인지적 행동의 학

표 7. 블룸의 인지적 행동 목표에 따른 질문유형 및 과제 분석

	질문유형						구체적 활동과제		
	지식	이해	응용(적용)	분석	종합	평가	토론	조사	그려보기
A	8	23	1	10	2	0	1	1	2
B	6	20	3	3	2	1	1	5	3
C	8	29	0	6	2	0	0	6	2
D	4	15	4	8	1	1	3	6	5
E	3	30	2	11	3	0	5	10	6
F	1	17	3	1	3	0	5	6	2

습목표를 지식, 이해, 적용(응용), 분석, 종합, 평가 등 6가지로 나누었다. 지식과 이해는 낮은 수준의 인지적 목표이고, 적용, 분석, 종합, 평가는 고급사고력의 목표이다. 블룸의 인지적 행동 목표에 의한 질문 및 과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본문 내용의 비판적 분석

이 장에서는 사회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기술되었는가를 살펴보고, 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교과서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았다.

본문의 내용 분석은 대단원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를 중단원 수준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①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가 모두(적합하게) 포함되었는가 ?

"1. 장소의 인식과 입지 결정" 단원에서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른다."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입지선정을 해볼 수 있는 탐구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E의 편의점 개점에 따른 입지선정 활동이나 D의 신도시 초등학교 입지선정 활동은 바람직하나, 나머지 교과서는 단순히, 입지요인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단원에서 "~도시 내부의 기능 및 지역 분화 과정을 이해한다."는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A, B, C, D, E는 접근성과 지대라는 경제적 요인과 계층이나 인종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업기능, 공업기능, 주거기능, 행정 기능 등이 일정한 장소를 차지하고 입지하면서 도시 내부지역이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F는 도시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고차기능과 저차기능의 재화의 도달범위를 조사하는 활동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은 도시 내부의 기능지역의 분화과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단원에서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나는 농촌 지역의 토지 이용의 변화를 조사한다."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C는 상업적 원예농업의 발달과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를 간략히 언급하였으나, 근교농촌 지역에서의 택지와 산업단지, 도시민의 오락 및 휴양공간, 대형 물류센터의 입지와 같은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에 대한 기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② 핵심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탐구활동과 사례의 구성이 적절한가?

D의 79쪽에 나오는 활동은 멕시코, 이란 및 우리나라 학생이 그린 세계지도를 비교해 보며, 장소 인식에는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을 지도에서 빼지 않고 비교적 자세하게 그렸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히 장소인식의 주관성을 나타낼 만한 근거는 없다.

"1. 장소의 인식과 입지결정" 단원에서는 "농업과 공업의 입지 요인 변동으로 인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조사한다." 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내나 외국의 사례지역을 나타낸 서로 다른 두 시기의 지도자료를 통해 입지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탐구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단원에서 "도시간의 상호 의존과 교류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 체계를 이해한다." 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A와 D는 서로 다른 계층의 중심 기능인 백화점과 소매업, 식료품점과 병원의 도시 내 분포 특성과 상권의 범위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해 계층적인 도시의 분포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용하여 도시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의도는 도시 내부의 계층적 중심기능의 분포 특성의 이해를 통해 한 국가 전체의 도시체계를 유추하도록 한 것이나, E와 같이 도시간 교통량 비교를 통해 도시간의 상호 의존과 계층성을 파악해보는 활동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도시체계의 개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도시간의 상호의존과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체계를 알 수 있는 지도가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95쪽의 활동은 대구의 도시내부구조 지도를 참조하여 내가 사는 도시의 내부 구조를 그려본 뒤, 두 도시의 내부구조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료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도시의 내부구조를 직접 그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보다 효율적 방안은, 우리나라 두개 도시의 내부 구조도를 주고, 내부구조 모형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는 '정보통신 시대의 일상생활' 이라는 사례탐구

의 내용은 생활권의 확대와 관련있는 사례라기보다는 정보통신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의 내용이므로, 적절한 사례탐구라고 보기 어렵다. 즉, 도로교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장 빠른 도로를 선택하고, 현금자동지급기를 활용하여 돈을 찾는 등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례탐구의 제목과 내용은 일치하나 이것이 '지역생활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소단원에 아주 적합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F의 103쪽의 지하철 노선의 최 외곽 역을 연결하는 활동은 같은 색끼리 어떻게 연결하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무엇을 의도한 활동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활동의 세부과제는 학생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을 일부 수정하여, 1984년까지의 지하철 노선을 제시하고, 그 이후의 확장되고, 신설된 노선을 다른 색으로 표시한 후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철 노선의 확장이 서울대도시권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1984년까지 인천과 수원까지 전철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후에 전철망이 보다 조밀화하며 많은 신설노선이 건설되었고, 서울 외곽지역과 분당, 일산과 같은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확장 노선이 건설되었다. 그림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도시권의 확대 범위를 명확하게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다.

③ 개념정의나 용어의 선택, 이론설명 등에 보편성과 정확성이 있는가?

B는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원료, 노동력, 자본, 토지를 공업입지의 4대 요인으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시장요인과 국가의 정책, 그리고 요즘에 강조되는 환경 요인 등은 좌측의 용어설명에서 간략히 다룬 점이 아쉽다. 또한 다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자금병합' 등 다소 어려운 용어까지 다루어 10학년의 내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든다.

C는 용어적 표현에 있어서 '지대지불능력' 대신 '땅값지불능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겠지만, 지대(地代)와 지가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 기술한뒤, 주석 등을 통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B는 환경문제의 대책을 제시하며, '분산적 환경행정', '통합적 환경행정' 등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소 어려운 용어의 사용이 눈에 띈다.

④ 문장의 표현과 표기에 있어서 어색한 표현이나 논리적 모순은 없는가?

C의 105쪽의 '대도시권은 어떻게 형성될까?' 에서 보면,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데에는** 대도시의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인구 집중이 크게 작용한다. 인구 집중이 대도시의 과밀화로 이어져 주택 부족 및 땅값 상승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를 피해**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거주지가 확산되어 대도시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선, 끝 부분의 '때문이다'가 앞부분의 문장과 적절하게 호응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피해'라는 표현도 목적어가 분명치 않다.

문맥의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경우이다. C에서 103쪽의 '농민의 도시로 간 까닭은? '의 5~7줄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사회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진다. 농촌에 비해 더 쉽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에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위 글을 보면, '때문에', '때문이다.'가 한 문장에 같이 사용되어 문맥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며 '더 쉽게', '더 많기'에서도 역시, '더'가 한 문장 안에 두 번 사용되어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다.

IV. 결 론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사회 교과서가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로서 창의력과 사고력 및 탐구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인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를 파악하기 위해 체제와 내용을 양적 분석방법과 질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7차 교과서는 체제 면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탐구활동이 크게 강조되어, 탐구활동을 통해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학습자료가 활용되었다. E를 제외한 대부

분의 교과서가 활동과 지식정보 제공을 절충한 형태를 띄고 있다. 내용의 전개체제 면에서 A는 귀납계열의 설명형 구조와 연역계열의 설명형 구조 단원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었으며, B, C, D, F는 연역계열형의 설명형 교과서, E는 유일하게 귀납계열의 발견형에 가까운 교과서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6종 교과서의 분량분석의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지리영역(I~IV)과 일반사회(VII~X) 영역이 40% : 40%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원별로는 지리 영역에서는 'II. 자연환경과 생활'과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VIII.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단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셋째, 대단원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질문 및 과제를 블룸의 인지적 행동의 학습목표 유형별로 구분해본 결과 이해에 관한 질문(과제)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응용, 종합 및 평가와 관련된 질문 유형은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W.D. Romey가 제시한 교과서의 탐구성 분석 방법에 의하여 6종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T값의 평균이 0.20~1.05에 이르러 6차 교과서에 비해 탐구지향적 교과서에 많이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 교과서는 단원에 따라 0.75~1.53에 이르러 수치상으로는 가장 탐구지향적 교과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교과서 내용의 비판적 분석의 결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방향이 약간 다르게 기술된 경우, 내용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탐구활동과 사례의 구성이 부적절한 경우, 용어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본문에 실려 있는 삽화가 부적절한 경우, 문장의 표현 방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註

1) 단원의 유형은 개념의 이해나 지식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지식 정보 중심형, 탐구, 발견, 표현, 감상 실습 등의 활동 중심형, 지식 정보 제공과 활동을 복합한 절충형 등이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교과서 모형개발 연구」, p.44.)

참고문헌

강인애, 1997, 왜 구성주의인가?, 도서출판 문음사.

_____, 2001, "'프로젝트 코리아'의 사례를 통한 가능성 탐색", 교육마당 21, 2, 32-37.

교육부, 1992,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

_____, 1997, 사회과 교육과정.

_____, 2001,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김 인, 1983, "한국의 도시체계와 성장도시", 환경논총, 서울대학교, 12, 134-165.

_____, 2000, 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김정호, 2000,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세미나 자료집, 3-52.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남영우, 1985, 도시구조론, 법문사.

문교부, 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서태열, 1993,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육학 박사학위논문.

_____, 1998,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사회과 교과서 내용의 구체화 방안", 교원교육, 1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59-175.

_____, 2000, "지리교과서 내용구성에서 활동중심 접근의 의의와 전망",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29-38.

손병길, 2001, "교육정보화 전략과 학교 교육", 지식사회의 도래와 한국교육의 대응, 교육인적자원부, 144-157.

윤영민, 1997, "정보화 사회의 정치적 전망", 크리스찬 아카데미, 정보화 시대 교육의 선택, 대화출판사.

이경한, 1996, 지리과의 가치수업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이상희, 1997, "정보화시대의 교사의 역할", 정보화시대 교육의 선택, 크리스찬 아카데미편, 대화출판사.

이희연, 1997, 경제지리학, 법문사.

장현정, 1996, 중학교 사회 I 교과서의 비교분석-한국지리부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영숙 외, 1998,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구성 방안 세미나 자료집, 덕성여대 교육대학원 부설 열린교육 연구소.

차경수, 1997, 현대의 사회과 교육, 학문사.

통계청, 2000,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교과서 모형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8, 제 7차 교육과정의 상세화를 통한 사회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편, 1999, 한국의 도시, 법문사.

W. D. Romey, 김현재 · 임영득 편역, 1980, 탐구적 과학지도기술, 현대과학신서, 110, 전파과학사.

Merrill K. Ridd, 1977, "On Geography", Gary A. Manson & Merrill K. Ridd, (eds.), *New Perspectives On Geographic Education*, Kendal/hunt publishing company. 13-38.

Jan O. M. Broek /John W.Webb, 1978, *A Geography of Mankind*, Mcgraw-hill international book company.

Frances Slater, 1993, *Learning Through Geography*,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